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76 2016 / 2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꿈을 향한 하모니
초등학교 제87회 졸업장



돌멩이야 고마워

글 김해삼성초등학교 교장 이동배

쨍쨍 내리쬐는
피약벌 아래
별경계 달귀진 들판에서
그늘 찾아 헤매던
개미 식구가
돌멩이 밑으로
들어와 맘을 식혀요.

돌멩이야, 고마워.

졸졸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속
미끈미끈 미꾸라지
숨바꼭질 하다가
돌멩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돌멩이야, 고마워.

마루 아래
어두운 돌멩이 밑에
귀뿔귀뿔 귀뚜라미
찾아와서는
몸을 숨기고 노래 불러요.

돌멩이야, 고마워.



Contents



04 권두언

권선징악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삶의향기

축구 하나로 가슴 뜨거웠던 우리의 봄 날 / 정종하

09 특별기획 / 기초학력 향상

기초학력 향상 정책 개관 및 향후 방향 / 이화진
2016.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기본 계획 / 최훈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신용진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Do Dream! / 최규철

20 교육정보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2016년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주요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도 평가 결과
법원 통고제도의 의미와 활용방법
부서(기관)별 2월 주요 행사 안내

28 배움중심수업

넷이서 만들어가는 배움 이야기 / 김희숙

30 배움이 즐거운 학교

나침반 교육과정으로 꿈의 보물지도 찾아라 / 박성홍

32 동아리 탐방

통합교과의 주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성 숲 속 창의나무를 가꾸어 나가요 / 정유진

34 이달의 교사

역사적 '그날'을 달력에 기록하다 / 최영심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교사 김상백의 서재는 학교문화다 / 김상백

38 장학월보 소식

장학월보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39 지상갤러리

土香 / 김형수



장학월보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6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최훈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오영선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표지사진 "음악과 함께하는 졸업식"
김태경(의령 지평초등학교 교사)



권선징악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지금도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화될 때마다 관객을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제로 삼은 '복수'의 감정이 이 평화롭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대중들의 가슴 깊숙이 내재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선량했던 청년 에드몽 당테스가 동료와 친구의 음모로 약혼자를 빼앗기고 절해 고도의 감옥에서 14년 동안 복수의 화신이 되어 분노의 세월을 보낸 다음,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여 치밀한 복수 행각 끝에 어긋난 운명을 돌려놓는다는 것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독자들은 이 복수의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선량함이 악행을 이겨야 한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행위가 불법임이 분명한데도 법의 심판보다 더 명료한 단죄에 쾌감을 느낍니다. 린치(私刑)는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사로운 형벌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법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은 정의를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란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줄여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기준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현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주 법칙 같은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이치를 따르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다음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바르지 않고, 욕망은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므로 끊어 내어야 한다는 생각도 바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의 평등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요컨대 정의는 바름이고, 바른 것은 타당성과 보편성을 가지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중은 정의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법은 당연히

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법이 이 가치 실현에 충실하지 않거나 거꾸로 간다면 린치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영국 작가 스티븐슨의 단편 ‘하룻밤의 유숙’에서는 시인 비용과 늙은 무부(武夫)의 언쟁이 박진감 있게 펼쳐집니다. 비용은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난을 들먹입니다. 이런 절박한 처지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서 도의심이 있음을 강변합니다. 늙은 무부는 교활한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비용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생각의 틀에 얽매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점 없는 자신의 논변에 우쭐대면서 마지막까지 늙은 무부를 앞뒤가 꼭 막힌 사람이라고 오히려 딱해하기만 합니다.

악행은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비용은 악한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비용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악한이라 보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태도와 그 태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논리가 악의 근원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선악 구조는 선명합니다. 린치로 양갈음을 하고 있지만, 법을 통해서도 충분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인 비용을 법으로 단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용의 비열함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과 정의의 간극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는 린치도 불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아야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포문을 열자마자, 제가 무상 포퓰리즘의 정치적 선동을 한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무상급식을 선거 당시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본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꾀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일어날 즈음, 저에 대한 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으면 보기 좋을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최근 불법 서명으로 나타났고, 마침내 철회를 선언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결여된 것이 바로 모두가 수긍하는 논리입니다. 비용은 자기 변명의 논리에 우쭐거리며 남의 말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부는 대화를 끊고 집밖으로 내쫓고 맙니다. 현실이든 소설이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논리로 펴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서사문학의 오래고 영원한 주제의 하나가 권선징악입니다. 정의가 인간 사회의 간절한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가진 이의 변명이 통용되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린치의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욕망 밖에 있는 자연 법칙 같은 것입니다.

새봄을 위해 버리는 달 이월 첫날에

교육감 박종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생생현장



- 1 청림실천 다짐대회
- 2 교육부주관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당선작 상장 수여
- 3 중리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급식시간
- 4 2016. 행복맞이학교 학교형 교원 직무연수

- 5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창원교육지원청)
- 6 배움, 소통의 BEST 청년교육설명회(창녕교육지원청)
- 7 겨울방학 장애학생 희망나눔학교 지원(거창교육지원청)
- 8 제17회 산청교육상 시상(산청교육지원청)
- 9 초·중학생 영어권 해외문화체험학습(합천교육지원청)
- 10 양산수학체험센터, 겨울방학 체험수학캠프(양산교육지원청)
- 11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강식(통영교육지원청)



축구 하나로 가슴 뜨거웠던 우리의 봄 날

글 남해 지족초등학교 교사 정종하

어릴 적, TV 축구 경기를 보며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다. ‘홍명보, 황선홍과 같이 나도 멋진 선수가 되어야지.’ 아버지가 사준 축구공을 가지고 씬 없이 운동장을 누볐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 또래의 주된 관심사이자 놀이는 축구였다. 담임선생님은 질리지도 않느냐며 편잔을 주기도 했다.

축구를 그리도 좋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차츰 멀어지게 되었다. 운동신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흥미를 잃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입시 공부에 지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임용 준비에 축구는 어느새 잊은 지 오래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작년 첫 발령을 받고 남해 지족초 정문을 들어섰을 때 나는 어릴 적 운동장을 누비던 꼬맹이의 모습을 불현듯 기억해냈다. 축구 하나면 충분한 순박한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축구에 대한 사랑은 아주 컸지만 우리학교는 몇 년 째 남해군 축구대회에서 1승조차 올리지 못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작년에도 1승을 올리지 못한 채 쓴잔을 마시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열정을 쏟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학생 수가 더 줄어서 4~6학년 남학생을 다 끌어 모아 근근이 팀을 구성했지만, 아이들은 승리를 위한 염원 하나로 푹푹 뭉쳤다.

기다리던 올해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꿈에 그리던 첫 승을 거두었다. 그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기세를 이어 두 번째 경기도 훌륭히 치렀지만, 아쉽게도 승부차기까지 가서 지고 말았다. 4강전에서는 남해의 가장 큰 학교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교체 선수가 몇 명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우리는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였지만 3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올렸다.

축구 대회로 뜨거운 한해를 보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더 큰 불씨를 지핀 날이 있었다. 우리 학교에 경남 FC 선수들이 방문을 한 것이다. 평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축구 선수들을 눈 앞에서 보고, 사인도 받고, 함께 축구를 하며 아이들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골키퍼의 꿈을 키우고 있던 한 학생은 “프로 축구 선수들이 직접 1:1 자세 교정을 해주니 그동안의 잘못된 자세를 쉽게 고칠 수 있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는 꿈이 확실해졌어요.”라는 소감을 밝혀 진로 발달에 촉매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올해 지족초는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뜨거웠다. 축구에 대한 사랑이 빚어낸 황금 같은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언젠가 그 날의 사진을 꺼내어 보며 ‘그 땀 참 뜨거웠었지.’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날을 기다려 본다.



특별기획

기초학력 향상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학습력 향상 및 지도·지원을 체계화하고 협력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2016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학력 향상 정책 개관 및 향후 방향

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이화진

1. 들어가기

학습부진학생 지도 또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과거에 ‘나머지 학습’이라 불리며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바가 없지 않았고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화진 외(2009)는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학습부진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담임/교과 교사만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방과 후 보정교육(‘나머지 학습’)보다는 학습부진의 사전 예방, 정규 수업 시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하는 ‘마을이 함께 아이를 기르는’ 정신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 양극화가 핵심적 사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사회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 가정의 해체와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며 교육 양극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흔히 학습부진의 주된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라 하는데 열악한 가정 경제 환경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정서행동발달 문제나 다문화, 북한이탈 가정 학생들 중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우리 정부도 교육 격차 해소, 즉 교육의 형평성 회복이 국가 사회적 최우선 책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09년도부터 정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2016년도 기초학력 향상 정책과 향후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방향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2.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변천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향상 정책은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로 전환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앙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사업(2009~2014)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비록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2014년에 정책 일몰제로 폐지되었지만,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초학력 정책들이 연계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부터는 ‘단 한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모토 하에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모든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보편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단위학교 학습클리닉을 표방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 학습적 복합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특징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의 변천 >

시기	~20090전	2009 ~ 2014	2012 ~ 현재	2014 ~ 현재
정책	담임교사 /단위학교책임지도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센터/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
특징	교사/교과중심 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 지도·지원	비 학습 요인 지원 및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생중심 지도·지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머지학습/ 보정학습 - 보정학습 자료 중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진 원인 진단 - 처방 - 관리체제 도입 - 학습 및 비 학습 요인 병행 지원 - 프로그램 중심 지원 - 학습부진 예방 및 정규수업 시 지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 - 정서심리행동 상담 기능 강화 - 학습상담 - 학습 코칭 - 학습치료 지원 •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 - 처방 시스템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다중 지원 협력체제 구축·운영 - 학생 중심 지원/ 개별 학생별 부진요인 (요구)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구현 -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강조

3. 2016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방향과 추진 체제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추진 목표

-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제를 정착시켜 학습부진학생의 최소화 도모
-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2) 기본 방향

-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잠재적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에 따른 학교 안팎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운영
- 교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유관 정책 사업과 연계한 학생 중심 통합지원 서비스 정착
- 효과적인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실질적 연계 도모

3) 추진 체제

이상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제는 다음과 같다.



4. 향후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방향

2009년도부터 정부의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추진되며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위의 2016년도 교육부 기본계획에도 나타나있듯이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을 단순히 나머지 공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학습부진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며,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은 담임/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학교 안팎의 전문성의 가진 교육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그리고 학습부진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 등이 널리 확산·공유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향후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 또는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정규 수업 시간 중 부진학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지도는 주로 방과 후 나머지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규 수업 시간에 소외된 채 방과 후에 보정하는 방식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향후 기초학력 향상 정책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수업 중 지도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학력 향상 사업과 유관 사업 간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사업 등을 운영하려면 유관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단위학교 수준이나 센터 수준에서 노력하여 연계를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유관 사업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협조공문 시행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실무자 선에서 어려움이 없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말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학습부진의 테두리 내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향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령을 마련하고 적합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드림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을 공유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두드림학교는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과 궤를 같이하여 ‘온 학교(마을)가 함께 아이들을 기른다’는 모토 하에 구안되었다. ‘두드림’은, 우리말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 아이들의 단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하는 학교; 둘,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두드려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셋, 정책 사업 간 칸막이를 두드려(소통하여)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가 그것이다. 영어로 “Do-Dream”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학교라는 의미를 갖는다. 두드림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러한 네 가지 방향을 공유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해 나갈 때,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노숙자나 될래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에 맞추는 교육이 아닌, 학교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교육을 꿈꾸어 본다.



2016.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기본 계획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최 훈

1. 들어가며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되면서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주로 지적인 학습 영역의 보충학습에 집중하였던 방향에서 지식, 태도, 이해, 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미달의 방향도 지적인 면, 정서·심리적인 면, 운동기능적인 면 등의 다중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도 학생의 학습 부진원인을 수준 및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여 그에 맞는 학생맞춤형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2016.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16. 경남교육청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내용

가. 추진 목표

- 1)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제를 정착시켜 학습부진학생의 최소화 도모
- 2)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나. 기본 방향

- 1)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잠재적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 2)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에 따른 학교 안팎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운영
- 3) 교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4) 유관 정책 사업과 연계한 학생 중심 통합지원 서비스 정착
- 5) 효과적인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실질적 연계 도모

다. 추진 내용

1)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전문 지원 활성화

가) 두드림학교 운영

- (1) 목적 :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통합적 지원 시스템 마련

* 학습부진,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다문화, 탈북, 돌봄 결여 등

- (2) 지원내용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진단, 맞춤형 학습지도, 학습상담, 학습코칭, 외부치료, 돌봄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3) 지원대상 :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등 도교육청 차원의 객관적 지원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 수 또는 비율이 높은 학교를 공모로 선정

(4) 운영방법

- 복합적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 두드림팀* 구성

- * 구성 예시 : 교감, 담임, 교과·학습보조·특수·상담·사서·보건·돌봄·영양교사 등
- 대상학생 선정한 후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 학교 내 유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 * 두드림학교는 방과후학교, 돌봄, 농산어촌, 다문화, 탈북, 학교폭력, 교복우, 학생건강지원 등 교육부 또는 도 교육청 지정/선정 다양한 정책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

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활성화

- (1) 목적 : 기초학력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
 - 설치 주체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설치
- (2) 기능 : 정서심리 검사 시행 및 활용 지원, 심층 상담, 학습코칭, 병·의원 등 지역기관 연계

다) 기초학력 진단 - 보정시스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1) 목적 :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를 지도교사 개인의 경험 및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온라인 교수-학습 지도 시스템을 통하여 교사의 업무경감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2) 대상 : 초 2학년 ~ 중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 초 2~3학년 : 읽기, 쓰기, 셈하기
 - 유형 : A형(이전 학년), B형(이전 학년 2학기~현 학년 1학기), C형(현 학년)

2) 교원 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 가) 교원·학부모·학습코칭단 연수 강화
 -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실시

3) 연계·협력 체제 구축

- 가) 교육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도강화
 - 학습종합클리닉센터·Wee센터·다문화·특수교육·교육복지센터, 협력병원 등
 - 지역 시설(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공부방 등)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검토

라. 기대 효과

- 1)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운영
- 2)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제를 정착으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 3)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3. 나가며

‘한 아이를 키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1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단위학교마다, 학급마다 존재하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 아이가 누구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있는지 다중 요인들을 분석해서 그어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이도 기초학력미달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글 창원 용원초등학교 교장 신용진

1.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진단

본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두드림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적용 대상자 선발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담임교사들의 의견과 다문화 학생의 문자독해 및 저학년 학생의 검사집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전문 학습클리닉을 통해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검사 및 학생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학생 33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는 학습부진이 신체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원인별 맞춤형 지도전략을 세우되 정서심리 안정에 주안을 두는 방향으로 두드림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큰 틀을 잡게 되었다.

2. 보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반짓골 공부방 운영 : 교과학습미달학생과 경계선학생을 위해 기존의 방과후학습도 병행하며 학기당 20시간씩,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독서동아리 운영 : 점심시간 및 방과후시간을 활용하여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책읽는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다. 희망나눔여름학교 : 굿네이버스 희망나눔여름학교 운영학교에 선정되어 여름방학 중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일 4시간씩 2주간 무상(중식 제공)으로 운영하였다. 다채로운 체험활동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를 통해 '나홀로' 학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알찬 방학생활을 엮을 수 있게 하였다.

라. 희망나눔여름교실 : 학급별 1~4명(또래친구와 동반)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희망나눔여름교실 프로그램(학급별 1주일 운영)을 운영하였다. 두드림학교 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가 좋거나 관계개선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참여도록 함으로써 두드림학생에 대한 '뒤처짐' 낙인을 예방하고 교우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 사제동행 :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사제동행 프로그램이었다. 문화·체험·놀이 등 담임의 자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의 지원과 교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바. 두드림희망리더스쿨 : 학습클리닉적성검사 결과와 담임 추천을 받아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지원을 위한 소그룹 전문 상담·치료를 실시하였다. 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본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서·심리 치료에 대한 낙인(烙印)예방을 위해, 본인 및 또래 학생에게 비밀 유지하고 리더십향상 및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투입하였다.

3.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가.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교육** : 학생들의 심리정서안정 및 감성발달을 위해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고 동식물 사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나. **학생 상시관리 시스템 운영** : 전 교원 대상을 대상으로 학생평가방법개선(1학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통하여 학습누락 예방 및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과 다문화학생지도(2학기) 관련 지역교육청 요청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다.

4. 유관기관과 협력 및 유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

학부모(보호자) 대상 연수,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진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가정에서의 지원 정보를 안내하였고 창원 꿈나르미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였다. 또한 Wee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취약가정 자녀를 위한 1:1 집중 관리를 지원 받았다.

5.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실현

지난 1년간의 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에서는 학생 개별 학습부진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 자아형성과 학습의욕 향상 및 학습참여태도 개선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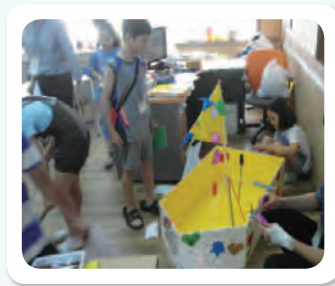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라 두드림학교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가 동참하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 방법 및 태도를 위한 ‘행복한 부모 교육(연수)’도 전개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희망나눔여름교실〉



〈반짓골 공부방〉



〈희망나눔여름학교〉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Do Dream!

글 김해대곡중학교 교장 최규철

1. 막연한 출발, 김해대곡중 두드림학교

본교는 처음에 두드림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을 세웠지만 운영을 전개함에 따라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수 학생대상 수업에 치중하였다. 타 학교 사례발표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운영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알았고, 형식적인 팀 운영과 막연한 계획 추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컨설팅 이후 다음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정을 했다.

첫째,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하자.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은 두드림학교 운영 학생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1~2학년 5명으로 인원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로써 학생들의 개별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둘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자.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상담기술이 필요하였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집중 상담을 위해 전문가 초빙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교는 2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각 5명씩 학습클리닉과 상담을 전담하도록 했다.

셋째, 학생이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보통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제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교는 기본적인 운영의 틀을 갖춘 후 학생들과 수시로 교류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을 주었다.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 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비중을 높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단체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학습클리닉과 상담프로그램을 일과시간 중으로 변경하기도 하였고, 방과 후에 진행한 기초학력다지기 수업도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도움자료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 즉,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무리하게 운영하기보다 학생들을 배려하며 참여시키는 운영으로 자발성을 자극할 수 있었다.

2. 소중한 결실! 김해대곡중 Do Dream!

첫째, 학습의욕향상 프로그램

학습의욕향상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전문가에 의해 학생 심리상담과 학습클리닉 위주로 운영되었다. 다양한 심리프로그램 운영과 개별상담으로 학생들의 심리치유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소극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였다. 학생 심리상담이 계획보다 많이 진행되어 학습클리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기초학습다지기

두드림 학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초학력향상이다. 방과 후(화,수,목)에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습 수업을 1시간씩 진행하면서 수업내용을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영어는 간단한 회화와 영화대사, 동화책 읽기 등을 전개하였고, 국어는 맞춤법과 문장구성 방법부터 흥미 있는 신문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쓰기 등으로 운영하였다. 수학은 초등 수학과 스토쿠 퀴즈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눈높이맞춤 놀이학습

두드림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흥미가 낮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업시간은 지루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누적되면 학교가 싫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도록 재미있는 동기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대상 학생들이 남학생이어서 움직이고 조작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방과 후 시간에 퍼즐 맞추기, 로켓 만들기, 큐브 로봇 만들기 등을 통해 흥미와 집중력을 키웠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학습의욕향상 프로그램>



<눈높이맞춤 놀이학습>



<문화체험행사>

3. 모든 학생들의 Do Dream!을 기대하며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면서 계획의 재수립, 학생들의 힘든 참여 유도, 강사초빙의 어려움 등 우여곡절과 힘든 점이 많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끝난 후 마음속에 뿌듯함이 남는다.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라도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다.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었고 의욕적으로 잘 따라와 주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책과는 답을 쌓았던 친구가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독서를 하고, 학교를 거의 오지 않던 친구의 결석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업시간에 항상 산만하다고 지적을 받던 친구가 수업에 잘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랑할 때 두드림학교 운영의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학교가 불가능한 변화에 도전했으면 한다.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 ▶ 2016년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주요 내용
- ▶ 2015 개정 교육과정
- ▶ 2015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도 평가 결과
- ▶ 법원 통고제도의 의미와 활용방법
- ▶ 부서(기관)별 2월 주요 행사 안내

2016년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주요 내용

2016년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계획 변경 내용 및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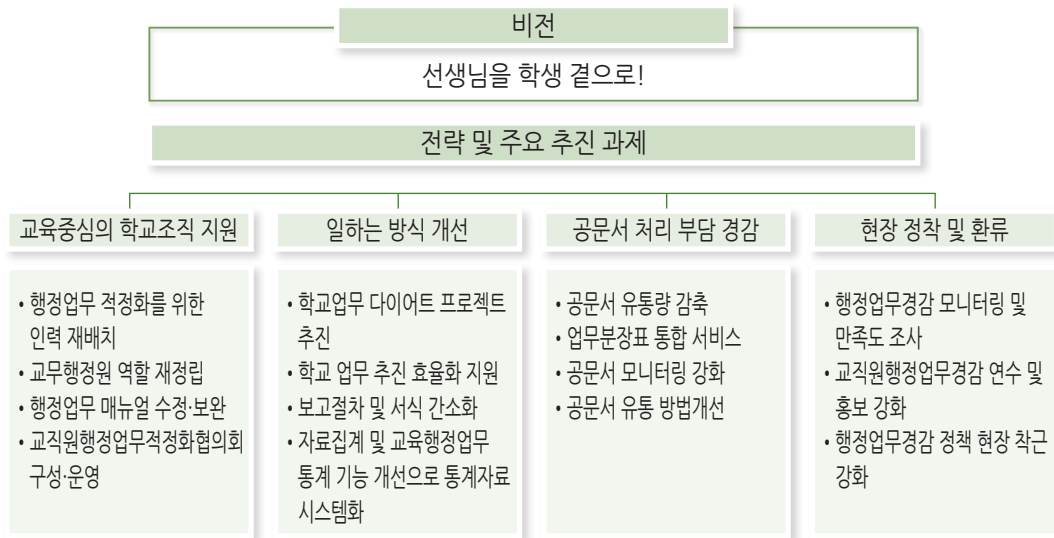
1. 2016년 신규 추진 사항

- 가. 담임교사 '공문서 없는 학교' 운영 권장
- 나.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웹 활성화
- 다. 자료집계 및 교육행정업무통계 기능 개선으로 통계자료 시스템화
- 라. 공문서 부담 사례 신고제 운영
- 마. '행정업무 없는 수요일' 운영

2. 기존 과제 변경 사항

과제명	2015년	2016년
	• 행정업무 경감	• 행정업무 적정화
교육중심의 학교 조직 구성·운영 지원	• 교무행정전담팀	• 교무행정지원팀
일하는 방식 개선	• 교육행정업무 통계 DB 운영 활성화	• 자료집계 및 교육행정업무통계 기능 개선으로 통계자료 시스템화
공문서 처리 부담 완화	• 기관(부서)별 업무추진계획 분기별 학교 통보(페이) • 공문서 없는 수요일	• 공문서 유통량 감축 - 교육청: 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분석 - 학교: 내부 공문서 감축 • 행정 업무 없는 수요일

3. 2016년 추진 방향



[담당자 연락처: 268-1509]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공식 명칭은 무엇이며,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공식 명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
- 단편지식보다는 핵심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토의토론수업, 실험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핵심 역량 함양
-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을 제시합니다.

- 총론에 제시한 역량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교과별 역량 : 총론의 역량과 연계하여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 과학기술 소양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전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인문학적 소양 교육 이란?**

- 세상은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 인문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인 양성
-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문학 교육을 이론 위주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며, 연극교육 등을 활성화
- 교과별로 학습내용에 인문학적 요소 강화

- 국어 : 인문고전 읽기 교육 강화
- 사회/도덕 : 토의토론 교육 활성화
- 체육 : 스포츠 과학과 인간의 관계, 스포츠 문화의 이해 등
- 음악/미술 : 예술활동 및 감상·비평활동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과 심미안 계발 등

▶ **과학기술 소양 교육 이란?**

- 과학기술적 소양이란 자연,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과학기술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과학과 교육과정을 대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융합·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구성

▶ **안전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방향**

- 안전교육 :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려(총6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로 편성·운영
- 소프트웨어교육 : 실과교과의 ICT 활용 중심의 정보 관련 내용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하여 5~6학년군에서 17시간 내외로 학습하게 됨

[담당자 연락처 : 268-1113]

2015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도 평가 결과

경남교육연수원 연수자(교원 및 지방공무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번호	평가 문항 내용(조문 및 해설 포함)	정답률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책임관 담당 업무(행동강령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의 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함.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은 징계처분권자에게 있음.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당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상담관리기록부에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 	8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행동강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대판 99도636, 1999. 4. 23.) -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판 66누68, 1967. 2. 7.) 	98.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행동강령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등 편의는 허용됨. 	83.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행동강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됨. 	8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행동강령 제18조),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행동강령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여행사)로부터 무료 여행 접대를 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임.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공무원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됨.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음. 	77.5%	정답률 저조

문항번호	평가 문항 내용(조문 및 해설 포함)	정답률	비고
6	<p>○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행동강령 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함. - 사립대학교 겸직허가와 별도로 사립대학 강연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함. -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고 타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도직속기관, 공립학교, 국립대학교부설 유·초·중·고등학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75.5%	정답률 저조
7	<p>○ 인사청탁 등의 금지(행동강령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됨. -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91%	
8	<p>○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행동강령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경조사비는 소속 상근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함. 	80.5%	
9	<p>○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등(행동강령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금품은 제한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정관·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금품은 제한 없음. -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제한 없음. 	77%	정답률 저조
10	<p>○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행동강령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함. (단, 경조금은 경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신고 가능)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함.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함.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반환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92.5%	

[담당자 연락처 : 268-1114]

법원 통고제도의 의미와 활용방법

폭행 사건을 자주 일으키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는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 법원에서 선도를 시켜주는 법원 통고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법원 통고제도의 의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학생을 통고하는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더 큰 일탈을 막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통고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년재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학생을 보호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원 통고 제도의 장점

법원 통고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처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절차

사건 수리 ⇨ 조사 ⇨ 심리개시결정 ⇨ 심리 ⇨ 보호처분결정

■ 경상남도 내 담당 법원 및 연락처

창원지방법원(642-7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년접수담당
전화번호: 055-239-2234

■ 통고서 양식

통고서 작성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접속 후 “양식모음”에 “통고서”를 검색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203]

부서(기관)별 2월 주요 행사 안내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기관)명	연락처
1	2.1.(월)~ 2.5.(금)	방과후과정 기타 교육활동 전문가연수	경남유아교육원 제1강의실	도교육청 인력풀 기타 교육활동 전문가	4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타교육활동 프로그램 별 이론 및 교수학습의 실제 연수(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역)	경남유아교육원 교육연구과	237-8082
2	2.2.(화)~ 2.28.(일)	갤러리 〈푸르미르〉 작품 전시회	1층 로비 갤러리 푸르미르	지역주민	300명	· 그림책원화전시 20점:누나가 좋다/고대영 · 아트앤티트 행복나누기 비엔날레 작품 전시 : 어린이미술작품 30여점	마산도서관 문헌정보과	240-4570
3	2.13.(토) 15:00~16:00	행복 팡팡 제기& 딱지 만들기	별관 2 (1층) 장애인 정보누리터	6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	100명	실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통장난감인 제기 와 딱지를 만들어 보고 전통놀이도 함께 체험 해보기	창원도서관	278-2852
4	2.16.(화) 14:00	2016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 전자 카드 실시 안내	경남특수교육원 정보실	특수교육지원 센터 담당 장학사 및 담당, 특수학교 업무담당자	50명	2016 특기적성교육지원사업 전자카드제 안내 및 연수	학교혁신과	268-1509
5	2.16.(화)~ 2.28.(일)	손안에서(愛書) 독서사진展	갤러리가야 제1전시실	지역주민	1,000명	‘2015년 손안에서(愛書) 독서사진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주최) 수상작품 26점 전시	김해도서관 평생학습과	320-5583
6	2.18.(목) 13:00~16:00 2.25.(목) 13:00~16:00	2016년 독서아카 데미-생각하는 인 문학 “스타 셰프 박찬일이 들려주는 서양음식의 문화사”	3층 시청각실	학부모 및 성인	260명	2016년 독서아카데미-생각하는 인문학의 첫 프 로그램으로 박찬일 셰프를 모시고 강연을 듣는다. 2.18.(목) ‘이탈리아와 한국의 음식은 닮았을까?’ 2.25.(목) ‘서양 부역의 변화, 음식의 문화사’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	320-5565
7	2.20.(토) 15:00	〈인형극 공연〉 모모와 심술마녀	시청각실	어린이 및 가족	100명	어린이에게 힘세다고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고 부모님께 잘못을 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 고 용서를 구하자는 내용이 담긴 “모모와 심술마녀” 인형극 공연	마산도서관 문헌정보과	240-4570
8	2.20.(토) ~2.21.(일) 10:30~18:00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별관 1 (1층) 로비	도서관 이용자	400명	유니세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구호 활동을 소 개하고 구호물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창원도서관	278-2852
9	2.22.(월)~ 2.26.(금)	2016.학생평가 및 교육과정 업 무 담당자 연수	9개 교육지원청 (창원, 김해, 양산, 밀양, 진주, 거제, 통영, 사천, 함양)	전초등학교 관리자, 담당자	1,000 여명	2016. 초등 학생평가 계획 2016. 초등교육과정 운영 계획	초등교육과	268-1115
10	2.23.(화) 10:00~12:30 14:00~16:30	2016.초등돌봄 교실업무담당자 연수	경남교육연수원 (교학관)	업무담당자	530명 (1,2기 운영)	2015. 돌봄교실운영 정산 안내 2016. 돌봄교실 운영 계획 안내 · 돌봄교실 운영 개요 · 돌봄전담사 모집·계약 및 관리 계획 등	학교혁신과	268-1525
11	2.26.(금)	원어민영어보조 교사	부산외대 및 경남교육연구정 보원	원어민 및 한국인 교사	20명	국립국제교육원 신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계약서 작성	학교혁신과	268-1514

넷이서 만들어가는 배움 이야기

1. 소인수 학급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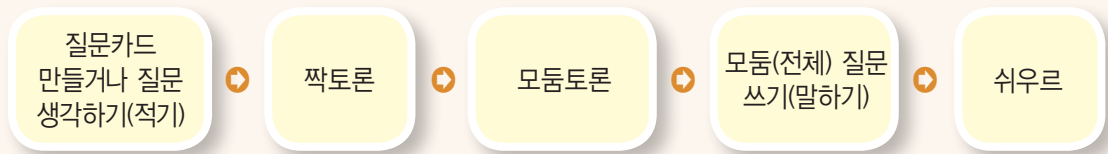
교육경력 25년 만에 농촌의 아담한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3명의 남자어린이와 1명의 여자어린이가 모두인 우리 반에서 그동안 나는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별 고민 없이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잘 가르친다던 자부심은 얼마가지 않아 큰 딜레마로 다가왔다. 4명의 아이에게 가르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았다. ‘퀴즈순서를 할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일까?’, ‘아이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 있을까?’ 처음 만나는 이 당황스런 상황에서 교수방법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명의 아이들과 함께 30명의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배움’이란 단어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배우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교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교사가 앞장서서 병아리처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스스로 정상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가고 싶어 하며, 교사는 이정표가 되어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 수업친구와 글자도 익혔어요.

글자를 잘 모르는 소인수 학급의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배움의 방법을 연구해 보던 중 아이들에게서 재미있는 특징을 찾아내었다. 혼자서는 그림 밖에 읽을 수 없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읽어 주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말로 표현하는 활동을 좋아했다. 동화책을 읽어준 후 질문지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토의하는 방법을 해 보았다. 그 방법은 의외로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배움중심 수업을 진행하되 변형 하브루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이다. 지문이 나오는 이야기는 반드시 읽고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기로 확인해 본다. 같은 동화책을 교사와 친구가 몇 번 씩 반복하여 읽어주는 활동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츰 글자도 익혀가기 시작하였다. 단, 공부하는데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경청) 그리고 말하라(공감)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가 공감도 잘하고 또한 표현도 잘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규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 수업은 Hop(자기생각 만들기), Step(생각 주고 받기), Jump(표현하고 공유하기) 활동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만들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이를 수업친구에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휘력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브루타 방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저학년 학생의 특징을 살려 구체물 조작을 통한 자신의 생각 만들기로 배움과 토론하기 단계인 Hop, 수업친구와 가르치는 관계가 아닌 모르는 것을 서로 묻고 배우는 협력학습인 Step, 배운 것을 즐겁게 표현하고 자신 있게 실천하는 표현의 공유인 Jump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등산을 즐기고 있었다.

3.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소인수학급의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책상을 다근자형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해 보았다. 나 중심적인 사고가 활발한 아이들이지만, 먼저 듣고 말하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활발한 하브루타를 만들어나갔다. 4명이라 짝토론, 모둠토론(전체토론)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남아 어찌지?’ 하던 우리 반이 이제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 ‘좀 쉬고 하자.’라고 내가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 반에서 실시한 하브루타 수업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만들기 단계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준 후 이를 참고하여 질문을 만든다. 생각카드 만들기는 아이들이 힘들어 하므로 글로 쓰지 않고 그냥 말하기로 해도 된다. 국어 시간이나 통합교과 시간외에 동화책을 주로 활용하여 수업을 만들어 나갔다. 수업시간에 활용한 하브루타를 소개하면, 친구와 서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가르치는 친구 하브루타,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는 상상 하브루타, 종합하고 정리하거나 선생님이 되어 정리해 가르치기 또는 사고 확장하기의 메타 하브루타 등을 적용하여 보았다. ‘4명이라 힘들어’가 아니라 ‘4명이어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대화와 경청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4. 배움이 즐거운 아이들과 신명나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교실

배움중심 수업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배움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료 교사들과 동료성을 구축하고 수업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구성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학년 구성원들로 구축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동학년이 아닌 전 교사가 블록타임을 이용하여 각자의 반에서 만난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수업친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업 나누기 실천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학생들도 자유롭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일방적인 가르치기를 멈춘다면 소인수, 다인수 학급이든 배움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글자를 잘 몰라도 남의 말을 듣고,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처음에 ‘뭘 가르칠까?’ 의 의문으로 아이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범 답안을 말해버렸던 일명 잘 가르치는 교사였던 나는 이제는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활동으로 아이들과 배움을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나고 있다.



나침반 교육과정으로 꿈의 보물지도를 찾아라

글 창원 대방초등학교 교장 박성홍

1. 진로교육으로 수렴되는 교육활동

우리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래에는 직업세계에도 상당한 지형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들 중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소위 일류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직업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많이 외워서 시험을 잘 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역량을 모두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존 학력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편성에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활동을 제공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성찰을 바탕으로 대방초등학교는 아이들의 강점지능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가 가진 개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나침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우리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진로교육으로 수렴된다.(2014.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교육과정 운영분과 전국 1등급)

2. 나침반 교육과정 “꿈의 스펙트럼 교실”

“꿈의 나침반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이 나오게 하자”를 대전제로 학년 초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중지능의 8가지 영역을 근거로 학생들의 지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학년은 다중지능 검사 및 최소 한 달 동안의 플로타임(Flow time, 몰입시간)과 상담을, 저학년은 플로타임과 상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파악하고, 주1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다중지능 영역별로 “꿈의 스펙트럼 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강점지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능 영역별 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교사들의 연수기회도 자주 가졌다.

3. 학생이 주인되는 수업 속 나침반 교육과정

나침반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토대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데 목표를 두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진로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이나 진로영역 수업 시에는 탐구중심활동으로 교사는 최소한의 부분만 개입하였다. 월 1회 “수업 나눔의 날”은 동료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신의 학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태블릿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 정보를 검색하고, 스마트 워크북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커리어넷 등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4. 자발적 동기부여, 다양한 체험학습

가장 훌륭한 교육활동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일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이 생긴다. 어른들의 성화에 억지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로 하게 되는 여러 경험들은 활동의 흥미와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스펙트럼 교실활동과 나침반 교육과정으로 진로인식 능력이 높아진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곳으로의 체험활동을 가자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다. 학기 중 7일 동안 허가되어 있는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자신의 강점지능과 관련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활동 전에 제출하는 계획서와 체험 후 보고서는 양질의 직업체험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셈이다.

5. 마음이 따뜻한 아이를 만드는 교육과정

페어플레이, 착한 가게, 착한 음식점, 착한 기업 등 도덕성이 높은 사람, 업체, 기업이 평가받는 시대에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진로교육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할 필수 덕목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연극체험, 뮤지컬 관람, 수차례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선플 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로 변화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네 꿈은 뭐니? 축구선수요.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냥요.”와 같이 성찰과 고민 없는 죽은 꿈이 아니라 가치를 담은 생명력 있는 미래 비전을 고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나의 비전 발표대회나, UCC제작 발표회 등으로 표현해 보게 하였다.(2015. 교육부 요청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6. 학교 공동체에 스며드는 긍정적인 변화

나침반 교육과정은 직업세계의 초니치(ultra-niches)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교육과정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직업세계에 시험이라는 선발제도로 진입하여 재미없고 보람도 없는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분야를 직접 개척해보라는 의도 또한 내재되어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은 직업 선택단계에 있지는 않다. 다만 나침반 교육과정의 실행은 자신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 대방초등학교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넘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꿈을 꾸단 말인가”로 스스로를 단정지었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까지 이어져서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 즐겁게 전진하고 있다.



통합교과의 주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성 숲 속 창의나무를 가꾸어 나가요

글 김해합성초등학교 교사 정유진

1. 연구회 시작의 첫걸음

아이들은... “놀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 교과 시간 중 주제별 학습의 첫 차시는 아이들과 학습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활동을 우선순위로 정하지만 학습 주제는 많고 진도에 쫓기다 보니 활동보다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된다.

교사들은... “통합교과 주제는 많고 중복되는 활동이 많아요.”

저학년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중복되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제가 다양하여 1년의 학습을 묶을 수 있는 프로젝트형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주제에 따른 창의·인성 요소를 정하고 프로젝트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2. 월별 주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수업 모델 개발

>> 월별 주제 통합 수업 모델 개발

- 어느 학급에서나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개발
-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개발
- 개관부터 학습지, 평가지까지 함께 개발하여 책자로 보급



역사적 '그날' 을 달력에 기록하다.

창원신월고등학교 **최영심** 선생님을 만나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19년차 역사 교사입니다. 암기과목이라 생각하기 쉬운 역사 과목을, 살아있는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은 동아리 학생들과 '역사달력' 제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2014학년도에 창원신월고로 전근을 왔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용을 고민하던 중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역사달력의 제작이었는데 뜻을 같이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이름 '역지사지(歷知史知)'에 대해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A. 일반적으로 역지사지라 함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뜻인데요. 우리 동아리는 ' 역사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역사(歷史)를 깊이 알고(知) 알아보자(知)는 의미의 한자 '歷知史知'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역사달력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2014년에는 학생 2~3명씩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교과서, 사전, 인물 자서전 등을 읽고 월별, 일별 주요 사건을 찾는 작업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달에서 알아야 할 인물과 사건, 유적지를 선정하였구요. 특히, 우리고장과 관련된 사료 발굴에 주안점을 두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제작에 매진한 결과 8월 말경에 벽걸이형의 2014.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역사적 그날(이하 ‘2014. 그날’)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류를 검증받기 위해 경남역사교사모임과 경남권 대학의 역사교육과, 사학과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월별 인물, 역사적 사건 및 유적지를 새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그린 약도를 첨부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1차 년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학생이 그린 ‘위안부’ 소녀상을 표지에 실어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6월 중순경 ‘2015. 그날’이 완성되었으며 1,2학년 전교생에게 배부가 이루어졌고 수업 시간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Q. 달력 제작 과정에서 겪은 애로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역사달력 제작은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에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작업을 시작할 때 역사적 사건을 날짜별로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오늘의 역사 코너가 넘쳐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 기록된 경우가 허다하여 애써 찾아온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음력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통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팀별 활동 내용을 편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 달력 내용 중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2014. 그날’의 12월 인물은 ‘위안부’ 할머니 중 생존 최고령으로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신 김복득 할머니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의 유적지는 고고학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창원 다호리 고분군을 조명하였습니다. ‘2015. 그날’의 1월 유적지인 상남동 지식모는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매일 접하는 유적지입니다. 이처럼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조명과 유적지 선정을 통해 지역사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인 것이 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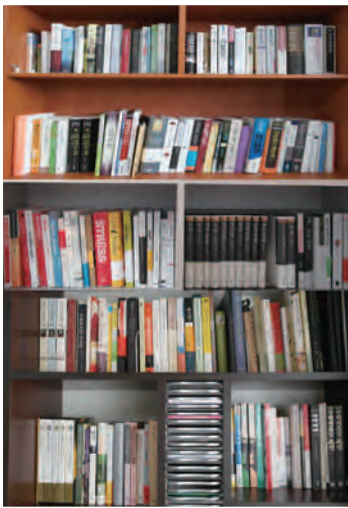
A. 내년에도 주변 지역 답사 성과를 반영하되, 미처 조명하지 못한 인물, 사건, 유적지를 더 찾아내어 ‘2016. 그날’을 발행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매년 작업이 지속된다면 ‘역사달력만으로 역사책을 엮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가져 보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역사부터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김상백의 서재는 학교문화다.

선생님이 수업만 잘하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교실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종류의 책을 사서 읽고,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내 수업을 간섭하지 마라' 도 제 서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채우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돕는 학교를 꿈꾸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종종 높은 산보다 주변의 낮은 산을 찾아 사진도 찍고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1.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시골의 작은 학교 출신이라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끔 학교에 책을 파는 트럭이 오면 재미있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없습니다. 교직에 들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과공부는 썩 잘하지 않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발표회를 하면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이와 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은 책을 기억하니?” 아이는 정색을 하며 “읽은 책을 왜 몰라요?”하며 독서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바로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책을 사보는 것이 제 취미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출판업계의 불황 타계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 책을 모을 공간이 없어서 방, 거실, 교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넓은 집을 구입하여 사랑방을 만들고 그 안에 책을 채워서 커피나 막걸리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장서로는 이덕일 선생님이 쓴 우리나라 역사 책, 리더십, 선택과 결정, 심리학, 문화 관련, 질문법, 뇌과학, 아나키즘에 대한 책들이 많고 간혹 시집이 있습니다.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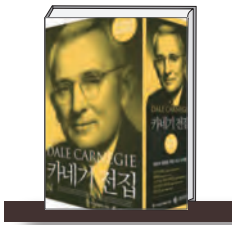
책을 읽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분만이라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강요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꾸준히 가슴으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내 수업을 간섭하지 마라'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어도 학교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을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논리로 원인을 밝히고 극복해 보자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히는 책이라고 읽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 불편하기도 합니다.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in



카네기 전집

데일 카네기 (지은이), 최연순 (옮긴이)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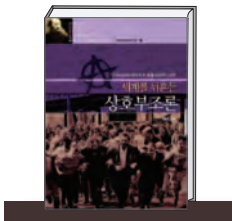
카네기의 저작물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욕구에 근거해 그들의 고민, 걱정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늘 부딪히며 해결이 녹록치 않는 문제, 그러면서도 현대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피할만 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해 카네기는 열정적인 연구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것들을 관통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며 강력한 원칙들을 만들어 냈다. 침체에 빠진 조직, 활기를 잃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카네기의 지혜, 고단한 시대의 행복을 위한 비결인 것이다.



드라이브

다니엘 핑크 (지은이) | 김주환 (옮긴이) | 청림출판 | 2011년 10월

앨빈 토플러와 함께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다니엘 핑크는 지난 20세기에는 전통적인 당근과 채찍의 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높은 성과와 만족을 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재 욕구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는 성취감, 그리고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능적 바람이다. 이것이 바로 모티베이션 3.0시대에 필요한 자발적 동기부여 '드라이브'임을 말하고 있다.



세계를 뒤집은 상호부조론

하승우 (지은이) | 그린비 | 2006년 08월

세계를 뒤집은 상호부조론은 1871년 파리코뮌, 제1인터내셔널과 쥐라연합의 대결, 볼셰비키와의 대립(일명 '아나-볼' 논쟁), 마흐노운동, 스페인 시민전쟁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수많은 사건들을 쫓아가면서 『상호부조론』의 정신이 이처럼 면면이 이어져오게 된 힘을 보여준다. 진정한 진보란 20%의 소수만이 아니라 80%의 다수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맹목적인 헌신이나 이기적인 경쟁을 넘어서 자치와 자율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공동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무한경쟁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세계를 뒤집은 상호부조론』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복잡하게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런 단순한 깨달음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장학월보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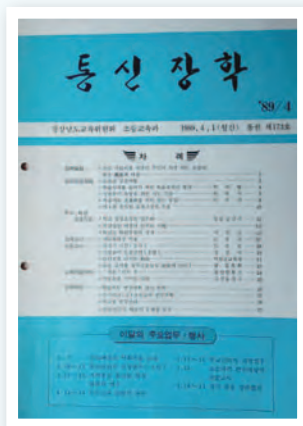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발행 월간지 ‘통신장학’의 맥을 이어 1993년 3월, 경남교육청 발행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났던 ‘장학월보’는 지난 23년간 다양한 교육정보로 경남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는 교육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장학월보’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식, 장학 및 교육칼럼, 교육정보」 코너를 통해 매월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을 전하였고, 「특별기획」 기사를 통해 교육계의 이슈 및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 경영 사례, 수업 방법 개선 사례, 학생 및 교사동아리 운영 사례 등을 선별·수록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교육정보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는 글, 삶의 향기, 지상갤러리」 코너를 통해서도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감성을 좀 더 부드럽고 풍성하게 해 주었으며, 「책 읽는 교사의 서재」를 통해 교사들의 개인 서재를 소개하고 그들이 원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장학월보’와 만나는 모든 교사들이 인문학적 소양에 심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장학월보’는 2016년 2월 통권 제276호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마무리 합니다. 경남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경남교육가족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그 동안 ‘장학월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사이즈 45.5Cm*45.5Cm 재료 : Oil on canvas

土香

조선시대의 달항아리는 한 쪽으로 약간 기울 듯한 비대칭의 아름다움과 하얀 빛깔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포근함과 여유로움이 그 어떤 도자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멋스러움을 주고 있다.

김 형 수 / 현) 호암중학교 교사

-
- 개인전 7회(서울, 마산, 창원, 진주, 오사카)
 - 한국정예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 현대미술의 주목작가전(서울, 조형갤러리)
 -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 중외공원)
 - 부산 국제 아트페어 초대전(부산 BEXCO)
 - 경남 국제 아트페어 초대전(창원 CECO)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위원 역임
 - 경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